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1



Contents



※ 2026.1.2.(금) 기준(대상 기간 : 2025.12.25.~2025.12.3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농진청, 2026년 R&D 신규과제 118개 공모…AI·탄소중립에 595억 투입(2025.12.29)	· 1
– 구미시, 로봇·이차전지·탄소중립 산업단지로 미래형 산업도시 가속화(2025.12.31)	……… 1
– 부여군 남면 자원봉사거점캠프, 탄소중립 양말목 발매트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2025.12.31)	2
– 전주시, 복지·돌봄·환경 전반 성과…탄소중립포인트제로 온실가스 4911톤 감축(2025.12.31)	2
–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녹색단지 최우수 아파트단지 2곳 선정(2025.12.30)	……… 3
– 광주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2024 탄소중립 백서' 발간(2025.12.30)	……… 3
– 신안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2050 탄소중립 실현 전담 거점 운영(2025.12.29)	…… 4
– 거창군, 탄소중립 선도…폐기물처리시설 전국 최우수 선정(2025.12.29)	……… 4
– 김해시, 2025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성과보고회 개최…4개 부문 21개 우수단체 선정(2025.12.28)	· 5
– 김포시,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 개최…선언 넘어 제도 전환 논의(2025.12.26)	……… 6
– 포항시, 정부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그린 암모니아 실증 추진(2025.12.25)	…… 6
– 광주자원봉사센터, 돌봄·탄소중립 중심 자원봉사 성과공유회 개최(2025.12.25)	……… 7
– 화성특례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심의…2030 기후 로드맵 점검(2025.12.25)	……… 7
– 의성군, 경북환경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탄소중립 행정 성과 입증(2025.12.25)	……… 8

■ AI 분야 9

- 청년 주거비 지원 및 AI 교육 확대 포함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2025.12.26) ..9
- 정부, 조선 3사 참여 AI 자율운항 선박 공동개발 구상 발표(2025.12.26)9
-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AI·에너지 거점도시 발판 마련(2025.12.25)9
- 대전 서구, AI와 UV 프린팅 융합 예술 콘텐츠 창작 교육 운영(2025.12.25)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0

■ 탄소중립 분야 10

- LH, 수소도시·스마트그린산단 조성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추진(2025.12.30)10
- 가스공사, ESG 경영으로 탄소중립 시대 선도...저탄소 LNG 전략 추진(2025.12.30) ...11

■ AI 분야 12

- 남부발전, 국내 최초 AI기반 탈질설비 제어시스템 개발 성공(2025.12.31)12
- 한전KPS, AI 기반 ESG 경영 혁신대상 특별상 수상(2025.12.30)12
- 부산테크노파크, 'AI전략 파트너스 협의회' 출범(2025.12.31)12
- 경북농업기술원-그리트,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현장 확산 MOU 체결(2025.12.29)1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3

■ 탄소중립 분야 13

- 현대차·기아, SBTi 온실가스 감축 계획 승인...204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재확인 (2025.12.25)13

- 정몽구재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성과공유회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2025.12.25) .. 14
- 순천향대, 한국서부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캠퍼스 구축 협약 체결(2025.12.31) 14
- 녹색전환연구소,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발간(2025.12.30) 15

■ AI 분야 16

- 네이버클라우드, 국내 최초 네이티브 옴니모달 AI 모델 공개(2025.12.29) 16
- 에이전트AI, 자본잠식 게임 개발사 니즈게임즈 40억 원에 인수(2025.12.28) 16
- 우리은행, 생성형 AI 활용 'AI대출상담원' 서비스 전면 개편(2025.12.26) 16
- 피지컬 AI 탑재 K-스타트업, CES 2026 로봇틱스 혁신상 휩쓸어(2025.12.26) 17
- 대구대, AI 반도체 펩리스 기업 퓨리오사AI와 인재 양성 협약 체결(2025.12.25) 17
- 영남대, 생성형 AI 건축설계 워크숍 개최(2025.12.25) 17
- 엔비디아,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AI21 랩스' 최대 30억 달러에 인수 협상(2025.12.31) .. 18
- 소프트뱅크, 미국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 40억 달러에 인수(2025.12.30) .. 18
- 엔비디아, AI 추론칩 스타트업 '그록'과 200억 달러 규모 기술 라이선스 계약(2025.12.26) 18
- 엔비디아, AI 추론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과 비독점 라이선스 체결 및 CEO 영입(2025.12.25) 19
- 광주 광산구청장-이재명 대통령 AI 합성 사진 의혹 논란(2025.12.31) 19
- AI 직무 전환 성공 사례 200건 분석...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2025.12.29) 2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농진청, 2026년 R&D 신규과제 118개 공모…AI·탄소중립에 595억 투입(2025.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하며, 6대 중점 분야 16개 사업 118개 과제에 걸쳐 지원 연구비 약 595억3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임. 공모 분야는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 식량주권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안전·행복한 농촌, K-농업 기술의 글로벌 확산 등 6대 분야로 구성됨. - 분야별로는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에 21개 과제 약 125억 원, 바이오·푸드테크 분야에 17개 과제 약 153억 원,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 분야에 40개 과제 약 137억 원이 배정됨.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과 진단 플랫폼, 지능형 농업로봇, 위성 영상 활용 농업관측 기술 등 디지털농업 관련 과제가 대거 포함됨. - 공모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참여 자격에 제한이 없음. 농진청은 내년 1월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지자체	<p>☐ 구미시, 로봇·이차전지·탄소중립 산업단지로 미래형 산업도시 가속화(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가 로봇, 이차전지, 첨단소재부품을 핵심 축으로 첨단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며 에너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함. 올해 로봇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 사업에 4건이 선정되어 도서관과 과학관 등에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서비스로봇 실증사업과 반도체 제조·물류 공정에 로봇 장비를 접목하는 로봇 플래그십 지역 거점 구축사업 등을 진행 중임. -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기술 고도화,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첨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소재부품 분야에서도 인조흑연 응용기술연구센터와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가 올해 준공되어 전주기 기술 지원이 가능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산, 탄소배출 저감,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 전환에 나섬. 지난 11월 경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시·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지난 4월 구미시 에너지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에너지 전략계획 수립을 본격화함.
	<p>□ 부여군 남면 자원봉사거점캠프, 탄소중립 양말목 발매프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 남면 자원봉사거점캠프가 대선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노인 2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양말목 발매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번 활동은 연말연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손을 활용한 소근육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 향상과 생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됨. - 양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소재인 '양말목'을 재활용해 발매프를 제작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는 새활용(upcycling) 활동으로 의미를 더함.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은 함께 발매프를 완성하며 성취감을 나누고 따뜻한 정을 나눔. - 부여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과 환경 가치를 결합한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힘. 남면 자원봉사거점 캠프는 취약계층 반찬 나눔, 주거환경 개선, 환경 정화 활동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음.
	<p>□ 전주시, 복지·돌봄·환경 전반 성과...탄소중립포인트제로 온실가스 4911톤 감축(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가 올 한해 복지·돌봄·환경 전반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연간 1만1046건의 위기 의심 가구를 조사하고 이 중 2763건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함. '전주함께복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사업 확대'로 누적 이용자 6만4810명, 후원금 1억7800만 원을 기록하며 행정안전부·전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부문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604회(2만5776명 참여)를 운영함. 에너지·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 4911톤을 감축하고 시민 1만1196명에게 2억4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도 병행하며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환경오염원 선제 관리, 생활밀착형 환경·위생 정책을 추진함. 전주시 관계자는 2025년은 시민의 삶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성과로 답한 해라며 앞으로도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p>□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녹색단지 최우수 아파트단지 2곳 선정(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 생활실천 녹색단지 선정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 단지 2곳을 선정함. 최우수 단지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초당마을주공3단지아파트와 기흥파크뷰아파트임. -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초당마을주공3단지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한 자발적인 점검,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공용공간 LED 조명 교체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펼침. - 기흥파크뷰는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 에너지 사용절감률과 전기차 충전구역 확보 비율이 높고, 주민과 함께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p>□ 광주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2024 탄소중립 백서' 발간(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4 탄소중립 백서'를 발간함. 백서는 탄소중립 현황과 목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 탄소중립 예산 및 추진체계 등 4장으로 구성됨. - 광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11개 부문 128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 중 122개 사업을 목표대로 이행함.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26만2600tCO₂ eq으로 당초 목표(25만5600tCO₂ eq)를 초과 달성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2024년 이행점검 평가에서 103.4점(매우우수)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는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탄소중립 정책을 행정 주도형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매년 탄소중립 백서를 발간해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임. 백서 발간본은 관계기관과 도서관 등에 배부하며 전자파일은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임.
	<p>□ 신안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2050 탄소중립 실현 전담 거점 운영(2025.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신안군이 국립목포대학교 도립캠퍼스에서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담 거점 운영에 돌입함.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국립목포대학교가 최종 지정기관으로 선정됨. - 센터 운영에는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함. -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탄소중립지원센터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탄소중립이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과 실행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성과라고 밝힘. 군은 국립목포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계획임.
	<p>□ 거창군, 탄소중립 선도…폐기물처리시설 전국 최우수 선정(2025.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거창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 시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수질오염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도내 1위 달성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선포하고 2034년까지 온실가스 76.8%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 213대 보급, 노후 경유 차 343대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총 1500t 규모의 탄소 배출을 저감함. 탄소중립 포인트제 누적 가입자는 전년 대비 607명이 늘어난 6597명을 기록하며, 전기 절감량 113만kWh, 탄소 감축량 약 541.7t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함. - '거창 한마당 대축제',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에 다회용기 대여·회수체계를 구축해 71만 개의 다회용기 사용, 14.85t의 폐기물 감축, 약 49.9t 탄소 절감 성과를 거둠. 거창 창포원은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 생태 정원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과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임.
지자체	<p>□ 김해시, 2025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성과보고회 개최...4개 부문 21개 우수단체 선정(2025.1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참여로 이뤄진 '2025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성과보고회'를 개최함. 홍태용 시장과 시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영유아, 초중등, 지역사회 4개 부문 21개 우수단체에 대한 상장과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 - 공동체 부문 최우수를 차지한 울현마을13단지LH아파트는 아파트 내 공용부·1267가구 전등을LED로 교체해 단지 내 전기 사용량을 6%가량 절감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음. 영유아 부문 최우수는 김해서부경찰서 어린이집과 앤어린이집이 공동 수상함. - 초중등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외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외동의 탄생'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 텃밭을 가꾸며 생태환경 감수성을 기르고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실천 캠페인을 진행함. 지역사회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내외동 지역방재단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탄소중립 꽃밭으로 만듦.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김포시,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 개최...선언 넘어 제도 전환 논의(2025.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탄소중립 정책과 김포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함.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RE100 확산 등 국가 정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 및 실행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주제 발표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는 탄소중립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가 단순 집행 주체를 넘어 감축의 핵심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포시는 건물·수송 부문 배출이 집중된 도시 구조와 한강하구 습지·염하 갯벌 등 대규모 블루카본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를 탄소흡수원 관리 정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김기남 의원은 건물, 수송, 흡수원, 에너지, 농업을 아우르는 5대 전략을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 강화,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 전환, 블루카본 기반 도시 브랜드화 등을 핵심으로 제안함. 토론회는 김포시가 탄소중립을 선언이 아닌 지역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됨.
	<p>□ 포항시, 정부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그린 암모니아 실증 추진(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경북 포항시가 최종 지정되며 지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림. 포항시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확정됨. 핵심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으로,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약 40MW급 무탄소 전력을 지역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임. - 사업 추진은 GS건설, 아모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맡으며, 그린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실증함.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26년부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포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들이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포항시는 '해오름동맹 포항 무탄소 에너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특화지역 운영에 나설 계획임.
	<p>□ 광주자원봉사센터, 돌봄·탄소중립 중심 자원봉사 성과공유회 개최(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자원봉사센터가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 자원봉사 단체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함. 이번 성과공유회는 '돌봄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된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 행사에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16개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관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돌아봄. 각 단체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돌봄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함. -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체가 단순히 사업에 참여한 것을 넘어 직접 기획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돌봄과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축적된 현장의 경험이 앞으로 지역 자원봉사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p>□ 화성특례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심의...2030 기후 로드맵 점검(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함. 회의에서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최종(안)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 평가를 심의함. - 적응대책은 '기후위기에 회복력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비전으로 삼고, '기후영향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와 '기후탄력성 강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함. 계획에는 건강·재난재해·농축산·물관리·해양수산·산림·생태계·산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에너지·교육·홍보 및 협력·인프라 등 8개 부문 47개 추진 과제가 담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올해 탄소중립 정책 기획 연구(3건), 온실가스 통계 정보관리 연구(1건), 교육·홍보 사업(3건), 협력 거버넌스 사업(2건) 등을 추진함. 시는 이달 31일까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할 계획임.
	<p>□ 의성군, 경북환경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탄소중립 행정 성과 입증(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군이 경상북도 주관 '2025년 경북환경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상을 수상함. 경북환경대상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나눠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의성군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환경관리 실태, 세계물의날 기관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4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함. - 의성군은 전담 인력 4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이행 상황을 연중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환경교육은 3개 마을에서 12회 진행됐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에는 20학급 283명이 참여함. -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네이버 밴드 '넷제로 의성 우리동네 탄소중립'을 통해 주민들이 실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빈 용기를 가져오면 친환경 제품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함.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 정책을 계획에만 두지 않고 실행과 평가, 주민 참여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해 온 점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고 밝힘.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청년 주거비 지원 및 AI 교육 확대 포함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2025.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 282개 과제 추진 발표. - 주요 내용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43만 명 이상에게 주거비 지원, 수도권 공공주택 2만8천 호 착공 및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 호 이상 공급 계획 포함. -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200만 명 이상 청년에게 지원하고,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및 7000억 원 규모 혁신창업펀드 조성 예정.
	<p>☐ 정부, 조선 3사 참여 AI 자율운항 선박 공동개발 구상 발표(2025.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함께 AI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협업형 모델 추진 계획 발표, 정부가 R&D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들이 기술 공유하는 방식 제안. - 개발 성공 시 각 기업의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배분한 신설법인 설립 구상, AI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항로 설계로 연료비 최대 40% 절감 가능성 제시. - 업계에서는 데이터 표준, 시험·인증 체계, IP 등 핵심 경쟁력 자산의 공유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 개발의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회의적 반응 다수.
지자체	<p>☐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AI·에너지 거점도시 발판 마련(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활용 가능, 산업 전기요금 경쟁력 확보. - SK MU가 전력 직접거래를 통해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SK·아마존 AI 데이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센터와 석유화학 기업 등에 저가 전력 공급 계획,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 무탄소 전력 공급 단계적 확대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특구와 연계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 중심 기업 이전과 투자 확대 효과 기대, 1GW급 데이터센터 조성 부지 확보 움직임 가시화.
	<p>□ 대전 서구, AI와 UV 프린팅 융합 예술 콘텐츠 창작 교육 운영(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서구가 생성형 AI와 UV 프린팅을 융합한 예술 교육과정을 내년 1월 29일까지 운영, 지난 10월 한국폴리텍대학교 대전캠퍼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 - 교육생들은 AI 이미지 생성과 디자인 기획, UV 프린팅 출력 실습 등을 통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융합형 콘텐츠 제작 전 과정 학습 예정. - 양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교육 성과 전시, 콘텐츠 발표회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LH, 수소도시·스마트그린산단 조성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추진(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2021년부터 수소도시 사업모델을 구상한 LH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3년에 수립하고, 3기 신도시 왕숙2지구 내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쓰며 2023년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함.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 자립률 14.5%,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률 26.1% 달성이 목표이며, 전주 탄소소재 산단은 에너지 자립률 26.17%,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률 26.13% 달성이 목표임. - LH는 공공주택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23년 기준 호당 300W에서 2025년까지 호당 600W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탄소상쇄숲 조성을 통해 2023년 목표 면적(25만㎡)보다 많은 38만㎡를 조성하고 탄소흡수량 460톤을 달성함.
	<p>□ 가스공사, ESG 경영으로 탄소중립 시대 선도...저탄소 LNG 전략 추진(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혁신 리더'라는 2030년 비전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천연가스 공급망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LNG' 전략을 추진 중임. 'LNG Canada 프로젝트'에서는 수력발전을 활용해 생산 시설 전력을 충당하며, 모잠비크 '로부마 LNG 프로젝트'에서는 전기구동식 액화설비와 고효율 복합발전 등 신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저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목표로 함. - 가스공사는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인 'MMRV Framework'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기술그룹으로 참여하며,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80배 이상 높은 메탄의 배출 측정 및 보고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국내 LNG 생산기지에서도 고효율 BOG 압축기 교체, 해수식 기화기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함. - 가스공사는 '제20회 대한민국환경대상' ESG 경영 부문 본상을 수상하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등급을 유지하며,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ESG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남부발전, 국내 최초 AI기반 탈질설비 제어시스템 개발 성공(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AI를 활용한 탈질설비 예측 제어시스템(SCR AI 제어 시스템)' 개발에 성공, 부산빛드림본부에 도입 및 실증 완료. - 해당 시스템은 대기온도 등 다양한 내·외부요인을 실시간 분석해 질소산화물 발생 농도를 사전 예측하고 최적의 암모니아 주입량을 자동 산출·제어하는 딥러닝 기반 스마트 기술. - 실증 결과 기존 대비 약품 사용량 21% 절감, 질소산화물 배출량 8.7% 감축 성과 달성, 특허출원 완료 및 전 발전소 확대 적용과 내년 2월 '일렉스 코리아 2026' 참가 예정.
	<p>□ 한전KPS, AI 기반 ESG 경영 혁신대상 특별상 수상(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KPS가 2025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 기반 ESG 경영 우수 사례 특별상' 수상, 정비 현장과 경영 전반에 AI 기술 적극 도입한 점 높이 평가. - 발전 설비 정비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사고 예방 체계 구축, 원전 고방사선 작업자 피폭 저감을 위한 AI 검사 로봇 현장 적용 등 안전·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선도. - '한전KPS형 AI 감사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감사 모델 구축 등 경영 관리 영역에서도 AI 기반 혁신 추진 중.
지방기관	<p>□ 부산테크노파크, 'AI전략 파트너스 협의회' 출범(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테크노파크가 정부의 AI 투자 확대 흐름에 대응해 산·학·연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AI전략 파트너스 협의회' 개최, 정부 AI 정책 동향과 부산의 AI 적용 전략 논의. - LG CNS, 솔트룩스, 인타운 등 AI 기업과 부산지역 대학, KISTI, BISTEP 등 참여, 2026년 정부 AI 정책 방향과 부산시 제조업 분야 AI 사업 중심으로 의견 교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제조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현장 중심 접근 필요성 강조, 부산시와 테크노파크, 대학, 기업이 '원팀'으로 성공 사례 창출 방안 합의, 2026년까지 협의회 운영 예정.
	<p>□ 경북농업기술원-그리트,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현장 확산 MOU 체결(2025.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농업기술원과 AI 전문기업 그리트(주)가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업 현장 데이터와 AI 기술 결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목적. -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모델 확산, AI 적용 경영성과 지표 개발·분석, 온실 AI 솔루션 시스템 검증 및 농가 보급 모델 개발 등 4개 핵심 분야 공동 협력 추진. - 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2026년 인공지능 디지털농업 원년의 출발점으로 평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 실현 시 전국 확산 가능한 스마트농업 모델로 발전 전망.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기아, SBTi 온실가스 감축 계획 승인...204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재확인(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와 기아가 국제 환경기구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각사의 온실가스 단기 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함. 지난 8월 단기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SBTi에 가입한 지 4개월 만에 관련 심사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것으로, 지난 9월 현대모비스에 이어 그룹 차원에서 두 번째 SBTi 승인을 획득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는 SBTi에 2030년까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1·2)을 2024년 대비 42.0% 감축하고, 판매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도 같은 기간 63.0% 줄이기로 약속함. 기아는 2035년까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4년 대비 63.0% 줄이고, 판매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63.0% 감축하기로 함. 현대차·기아는 2035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204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할 예정임. - 이번 SBTi 인증으로 현대차·기아는 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선정 요건을 갖추게 되어 기아의 EV4와 PV5는 영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에 포함됨. 업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 온 탄소중립 전략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p>□ 정몽구재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성과공유회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성과공유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이번 표창은 재단이 2023년 11월 출범한 '그린 소사이어티'를 통해 기후테크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해 산업 현장과 연결하고, 민·관·학 협력의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됨. - 그린 소사이어티는 기후테크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플랫폼임. - 정몽구재단은 이번 수상을 통해 민간 재단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대학교	<p>□ 순천향대, 한국서부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캠퍼스 구축 협약 체결(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향대학교가 한국서부발전(주)과 탄소중립 친환경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캠퍼스를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이자 분산형 에너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캠퍼스 내 탄소배출 절감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 개발, 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분야 산학협력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학술·기술 협력 등을 담고 있음. - 순천향대는 캠퍼스를 친환경 에너지 실증과 기술 검증, 교육·연구가 결합한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조성하고, 학생과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 송병국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 에너지 전환 모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힘.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녹색전환연구소,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발간(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연구소가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며 탄소예산 고갈과 AI발 전력수요 급증이 맞물리는 2026년이 전환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K-GX 전환금융, 기후적응정책 재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2026년은 더 이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느냐 여부가 탄소중립 성패를 결정하는 문턱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미국 기후정책 후퇴와 유럽의 동요, 중국 녹색산업 주도권 강화 속에서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매년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함.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이 0.67%에 그친다며 RE100 산단이 지향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AI 3대 강국 전략이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와 맞물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K-GX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재정과 금융이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인프라를 지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함.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이 먼저 녹색 혁신과 전환을 서두른다면 글로벌 기후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녹색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네이버클라우드, 국내 최초 네이티브 옴니모달 AI 모델 공개(2025.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클라우드가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국내 최초 네이티브 옴니모달 구조 적용 모델 '하이퍼클로바 X SEED 8B Omni'와 고성능 추론 모델 '하이퍼클로바 X SEED 32B Think' 오픈소스 공개. - 하이퍼클로바X SEED 8B Omni는 단일모델이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등을 함께 학습하는 네이티브 옴니모달 구조 전면 적용, 텍스트와 이미지의 맥락을 함께 이해해 결과물 생성하는 옴니모달 생성 기능 보유. - 하이퍼클로바X SEED 32B Think는 올해 수능 문제 풀이에서 국어·수학·영어·한국사 등 주요 과목 모두 1등급 달성, 영어와 한국사 만점 기록으로 글로벌 주요 AI 모델과 유사한 성능 범위 입증.
	<p>☐ 에이전트AI, 자본잠식 게임 개발사 니즈게임즈 40억 원에 인수(2025.1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 상장사 에이전트AI가 최대주주 사토시홀딩스 변경 이후 첫 행보로 비트맥스로부터 게임 개발사 니즈게임즈 지분 99.17%를 40억 원에 인수, '김병진 회장 사단' 내 사업 구조 재편 성격. - 피인수사 니즈게임즈는 과거 네이버 라인게임즈 자회사로 '언디셈버' 개발 후 실적 급격히 악화, 올해 10월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 - 인수 성공 여부는 내년 1월 20일 출시 예정인 신작 '다크디셈버' 흥행에 좌우, 외부평가기관은 2026년 해당 게임으로 매출 159억 원, 영업이익 약 50억 원 흑자 전환 전망.
	<p>☐ 우리은행, 생성형 AI 활용 'AI대출상담원' 서비스 전면 개편(2025.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이 비대면 대출 상담 서비스 'AI대출상담원'을 전면 개편, 기존 상품 설명 중심에서 대출 목적과 조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대출 상담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확대된 서비스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으로 상담 범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확장, AI가 고객의 이전 상담 이력을 참고해 연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AI 기반 경영 시스템 전환 일환, 비대면 환경에서 영업점 창구 수준의 대출상담 경험 제공 목표.
	<p>□ 피지컬 AI 탑재 K-스타트업, CES 2026 로보틱스 혁신상 휩쓸어(2025.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S 2026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 15개사 중 한국 기업 8곳 차지, 고레로보틱스·나비프라·휴로틱스·휴머닉스 등 스타트업 4곳 포함, 기존 로봇 문제점 해결해 활용도 높은 제품 특징. - 고레로보틱스는 유연한 소재의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배송로봇 'AA-2', 나비프라는 카메라 비전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mm단위 정밀 위치조절 시스템으로 혁신상 수상. - CES 2026 혁신상 전체 284개사 중 60%인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 CES 2025의 131개사(45%)보다 숫자와 비중 모두 증가, K-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
대학교	<p>□ 대구대,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퓨리오사AI와 인재 양성 협약 체결(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대학교가 국내 대표 AI 반도체 팹리스 유니콘 기업 퓨리오사AI와 'AI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및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에 따라 대구대는 교내 반도체교육원을 주축으로 퓨리오사AI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 과정'과 기업연구실 운영, 팹리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배양에 초점. -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대학 교육 인프라와 기업 혁신 기술 결합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모델로 기대.
	<p>□ 영남대, 생성형 AI 건축설계 워크숍 개최(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대학교가 지난 19~20일 이틀간 '2025 제2회 생성형 AI 건축설계 워크숍' 개최, 건축설계학과 및 건축학부 학생과 대구·경북 지역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120여 명 참여. - 스튜디오 워크숍에서 '미드저니', '제미니'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영남대 본관과 (구)약학대학 건물의 외관과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원데이프로젝트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을 건축설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실무형·협업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AI를 설계 사고의 확장 도구로 이해하고 건축가 판단과 결합하는 교육 방식 제시.
해외	<p>□ 엔비디아,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AI21 랩스' 최대 30억 달러에 인수 협상(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AI21 랩스를 20억30억 달러(약 2조9000억4조320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 진행, 이스라엘 경제 매체 칼칼리스트 보도. - AI21은 2017년 설립되어 대규모 언어모델(LLM) 분야 독보적 기술력 보유, 2023년 기업 가치 14억 달러 평가 당시 엔비디아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투자 라운드 참여. - 업계는 엔비디아가 AI21의 '맨파워'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 직원 200여 명 중 대다수가 AI 분야 석·박사급 고급 학위 소지자로 희소성 높은 전문가 집단 흡수 통한 기술 격차 확대 포석.
	<p>□ 소프트뱅크, 미국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 40억 달러에 인수(2025.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를 40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 인수, 발행 주식 전량을 주당 16달러에 인수 계약 체결. - 디지털브리지는 데이터센터와 광섬유망, 무선기지국 등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지난 9월 말 기준 1080억달러 규모 자산 운용 중. - 손 회장은 “AI가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면서 더 많은 컴퓨팅, 연결성,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인수 통해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반 강화 및 선도적 인공지능(ASI) 플랫폼 제공업체 비전 가속화 언급.
	<p>□ 엔비디아, AI 추론칩 스타트업 '그록'과 200억 달러 규모 기술 라이선스 계약(2025.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설계 스타트업 그록과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로 알려진 초고속 추론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규모 계약으로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록 창업자 조너선 로스와 서니 마드라 사장 등 핵심인력이 엔비디아에 합류해 라이선스 기술 발전과 확장 지원, 반독점 규제를 피해 사실상 기업인수에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십 분석. - 그록은 AI 추론에 특화된 'LPU'(언어처리장치) 개발 기업으로 메모리 내장 설계로 GPU보다 더 빠르고 전력소모 적은 특징, 지난 9월 블랙록·삼성전자 등으로부터 7억5000만달러 투자 유치 시 기업가치 69억달러 평가. <p>□ 엔비디아, AI 추론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과 비독점 라이선스 체결 및 CEO 영입(2025.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록이 AI 추론 가속화를 위해 엔비디아와 비독점 기술 라이선스 체결 공식 발표, 고성능·저비용 추론 기술 접근성 확대라는 공동 목표 반영. - 그록 설립자이자 CEO인 조너선 로스와 서니 마드라 사장 등이 엔비디아에 합류, 회사는 독립 기업으로 계속 운영되며 사이먼 에드워즈가 새 CEO 역할 담당 예정.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사내 이메일에서 “그록 TPU를 엔비디아 AI 팩토리 아키텍처에 통합해 실시간 AI 추론과 다양한 워크로드 지원 확대 계획“이라며 “회사 인수가 아닌 핵심인력과 IP 라이선스 확보“ 설명.
기타	<p>□ 광주 광산구청장-이재명 대통령 AI 합성 사진 의혹 논란(2025.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이 AI 합성 여부 논란, 지난해 5월 금호타이어 화재 대피소 현장 배경 사진이 SNS 단체 채팅방에서 확산.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같은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담겨 있어 박 청장이 AI로 합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홍보 효과 노린 것이라는 해석. - 박 청장은 SNS를 통해 “존재했던 일을 조작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며 전면 부인, 광산구 관계자도 “같은 구도가 담긴 사진이 공식 구보에 게재됐으며 AI 보정조차 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반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AI 직무 전환 성공 사례 200건 분석...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2025.12.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기존 직무 경쟁력을 발판으로 AI 분야에 뛰어드는 K직장인 증가, 채용 플랫폼 리멤버 의뢰로 AI 분야 이직 성공 사례 200건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과 업무 자동화 분야 경력자 다수. - AI 직무는 R&D 연구직, AI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기술직, AI 서비스 기획자 등 기획·비즈니스 영역으로 구분, 문과 출신도 기획 및 비즈니스 영역 진출 가능. - 글로벌 HR플랫폼 딜 조사 결과 전 세계 기업 91%가 '직무가 이미 변화했거나 일부 대체됐다'고 응답, 한국 응답자 43%가 'AI로 인해 매우 중요한 역할까지 직무 재설계 진행 중'으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